

#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의 생활시간 사용에 관한 비교연구\*

Comparison of the time use between married female  
home-based workers and on-site workers\*

인제대학교 가족·소비자학과  
부교수 김 효 정

Dept. of Family & Consumer Sciences, Inje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Hyochung Kim

##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II. 선행연구의 고찰	V. 요약 및 제언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time use of married female home-based workers in comparison with married female on-site worker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65 home-based workers and 292 on-site workers in Busan and Kyungnam province, by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Frequency distributions, Pearson's correlation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by SPSS/PC+.

The major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both groups spent more time in physiological activities, household work, and leisure on weekends than on weekdays, while they spent more time in work on weekdays than on weekends; and (2) generally, the age of the youngest child and the home presence of an aged or handicapped relative had effects on the time use of home-based workers. These results imply that home-based workers need to develop some strategies for time management to harmonize their home-based work with household work.

**주제어(Key Words):** 기혼여성 재택근무자(married female home-based workers), 기혼여성 직장근무자(married female on-site workers), 생활시간 사용(time use)

Corresponding Author: Hyochung Kim, Department of Family & Consumer Sciences, Inje University, 607 Obang-dong, Kimhae-city, Kyungman 621-749, Korea Tel: 82-55-320-3246 Fax: 82-55-321-9550 E-mail: homehyo@inje.ac.kr

\* 본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I. 서론

### 1. 문제제기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더불어 여성의 교육기회 증가 및 산업에서의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증가로 인하여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남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1970년에 77.6%에서 2000년에 74.0%로 감소한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1970년에 39.3%에서 2002년에 51.8%에 이르고 있다(한국일보, 2002).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미혼여성에 비해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취업 기혼여성은 전통적으로 여성역할이라 할 수 있는 가족역할에 전통적으로 남성역할이라 할 수 있는 직업역할까지 수행해야 하므로 역할과중으로 인한 갈등이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취업 기혼여성들이 겪는 역할과중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최근 재택근무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즉, 재택근무는 가정과 직장이라는 양립의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혼여성들로 하여금 가정활동과 소득창출 활동을 같은 공간에서 수행해 하고 자유롭고 융통성 있는 시간사용을 제공함으로써 취업기혼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재택근무자들은 시간사용 및 노동분담의 경계나 역할분담에 있어서 혼란을 겪기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문숙재·김지희, 1997). 즉 기혼여성 재택근무자들은 가사일과 직장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경계가 모호하고 또한 이중역할에 따른 역할갈등을 경험하기도 하며 가사일로 인해 업무의 방해를 받기도 한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나 노인이나 장애인 등 가족요구가 높은 가족원이 있는 경우 이들로 인한 업무의 방해나 시간관리의 어려움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가사일과 직장일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은 기혼여성 재택근무자들에게 있어 장점이자 가장 큰 어려움이 되고 있고, 시간사용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 2. 연구목적

재택근무는 가사책임과 자녀양육 부담이 있는 기혼여성들에게 탄력적 노동시간을 제공함으로써 가정 내에서 가정과 업무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에 있어서 새로운 관심 영역이 되고 있다. 재택근무 및 재택근무 가정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 전체 노동시장 내에서의 재택근무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노동관련 특성, 직업환경 특성, 주관적 만족도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Kim, 1995; Beach, 1989; Christensen, 1987; Gritzmacher, 1993; Heck & Walker, 1991; Heck, 1992; Heck, Winter & Stafford, 1992; Owen, Carsky & Dolan, 1992; Rowe & Bentley, 1992; Rowe, Stafford & Owen, 1992).

그러나 재택근무에 대한 관심과 재택근무자들의 숫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 특히 재택근무자들의 시간사용의 측면을 파악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혼여성 재택근무자가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여 사용하는지를 생활시간 조사를 통하여 알아봄으로써 이들의 일상생활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생활시간을 생리적시간, 수입노동 시간, 가사노동 시간, 사회문화적 시간으로 구분하여,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의 생활시간과 요일별로 비교해보며, 생활시간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의 고찰

### 1. 생활시간에 관한 선행연구

#### 1) 생활시간의 의의 및 분류

생활시간은 하루 24시간이 어떤 생활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시간적 배분과 함께 생각하는 것

으로, 하루의 생활내용을 시간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문숙재, 1996). 생활시간의 사용은 기본적으로 사회경제적 체계의 영향을 받으며, 그 밖에도 노동방식, 생활수단의 양과 질, 사회적 공동 소비수단의 양과 질, 가족생활주기, 가족원의 수나 연령, 지역과 종교 등의 객관적 특성과 가치, 태도, 동기, 선호 등의 주관적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생활시간을 분석함으로써 일상생활을 구체적이고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개인, 가족 및 사회전체의 생활양식과 가치관, 생활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해볼 수 있다(이기영·김외숙·서창원·이승미, 1994). 생활시간을 분류하는 방법은 연구자에 따라, 그리고 연구목적에 따라 <표 1>과 같이 다양하다.

2) 생활시간 사용 실태

한국방송공사에서 실시한 국민생활시간 조사자료를 근거로 하여 1981년부터 1995년까지의 생활시간 사용 실태를 살펴보면 생활필수시간의 경우 년도에 따라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으며, 토요일과 일요일

에는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시간 중 일의 경우를 살펴보면 평일과 토요일 모두 1981년에 비해 1995년에는 일에 보내는 시간이 많이 증가하였으나, 가사노동시간은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가행동을 살펴보면 교제나 레저활동이 평일에 비해 토요일, 일요일에 다소 증가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여가행동은 TV 시청으로 나타났다.

성인남녀를 비교해 보았을 때 생활필수시간이나 여가행동의 경우 남녀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고, 가사노동시간과 일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남성의 경우 평일 하루 일에 보내는 시간이 1995년을 기준으로 7시간 정도인데 반해, 여성은 4시간 22분이었다. 한편 가사노동시간은 여성의 경우 같은 연도를 기준으로 평일 하루 3시간 정도인데, 남성은 17분에 불과하였다(한국방송공사, 1981, 1995).

한편 1994년 도시근로자 가정부부를 대상으로 생활시간을 조사한 이기영 등(1994)의 연구에 의하면 평일의 경우 부인의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남편은 10시간 이상의 수입노동을 하며, 전업주부의 경우 8

<표 1> 생활시간의 분류

연구자	생활시간 분류
Szalai(1972)	직업노동에 관련된 일, 가사노동, 기타 가사의무, 자녀양육, 개인적 필요시간, 직업과 관련없는 교통시간, 학업과 조직에 참여하는 시간, 대중매체 이용시간, 여가시간
Hill(1985)	시장노동, 가사 및 육외노동, 자녀돌보기, 서비스 및 구매, 개인적 돌보기, 교육, 조직 참여 활동, 사회적인 오락, 적극적 여가, 소극적 여가
농촌진흥청(1986)	노동시간, 여가시간, 휴양시간
서병숙·임정빈(1989)	생리적 시간, 가정노동시간, 수입노동시간, 사회문화적 시간
勝本武(1989)	수입생활시간, 소비생활시간(생리적 생활시간, 가사적 생활시간, 사회문화적 생활시간)
한경미(1991)	생리적 시간, 직업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
조희금(1993), 이기영 등(1994), 홍향숙·박수경(1994)	근무시간, 이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 개인적 돌보기 시간
오경희(1995)	생리적 생활시간, 수입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사회문화적 생활시간
한국방송공사(1995)	생활필수시간(수면, 식사, 신변잡일), 노동시간(일, 학업, 가사), 이동시간, 여가시간(교제, 휴양, 레저활동, 신문·잡지·책, 라디오, TV 시청)
통계청(2000)	개인유지, 일, 학습, 가정관리, 가족 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이동, 기타

시간 20분의 가사노동을, 취업주부의 경우는 11시간 48분을 노동에 분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요일의 경우도 부인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남편들은 7시간 반 이상의 수입노동과 1시간 미만의 가사노동을 하였으며, 취업주부는 5시간 반 정도의 수입노동과 4시간 반 정도의 가사노동을 하였다. 한편 전업주부는 7시간 반 정도의 가사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화적 시간은 토요일의 경우 평일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취업주부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적은 4시간 미만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남편의 사회문화적 시간이 9시간이었으나, 취업주부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적은 6시간 반 정도를 사회문화적 시간에 할애하고 있었다.

1999년에 실시한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의하면(통계청, 2000), 여성의 경우 가사노동 시간은 평일 3시간 20분, 토요일 3시간 27분, 일요일 3시간 24분 반면, 남성의 경우 평일 25분, 토요일 30분, 일요일 41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에 할애하는 시간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평일 3시간 1분, 토요일 2시간 39분, 일요일 1시간 45분이었고, 남성의 경우 평일 5시간 4분, 토요일 4시간 31분, 일요일 2시간 40분이었다. 한편 여성취업자의 수입노동 시간은 요일 평균 6시간 12분, 남성취업자의 수입노동 시간은 7시간 8분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사노동 시간을 살펴보면 전업주부는 요일 평균 5시간 38분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취업자는 2시간 46분, 남성취업자는 28분이었다.

### 3) 생활시간 사용 관련변인들

생활시간 사용과 관련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관해 살펴본 연구들은 대부분 가사노동시간이나 사회문화적 시간에 관한 것으로, 이들 시간에 미치는 각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주부의 연령

주부의 연령은 가사노동시간과 사회문화적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주부의 연령이 낮을수록 가사노동시간은 많았고 사회문화적 시간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경희(1995)의 연구에 의하면 평일의 경우 40세 미만의 주부가 40세 이상 주부보다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시간이 더 길었으며, 홍성희(1993), 한경미·황덕순(1990)의 연구에서는 주부의 연령이 많을수록 여가시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주부의 교육수준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의하면 주부의 교육수준은 가사노동시간과 부적인 관계를(오경희, 1995; 한경미, 1989), 그리고 사회문화적 시간과는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오경희, 1995; 한경미·황덕순, 1990; 홍성희, 1993). 즉 교육수준이 낮은 주부가 교육수준이 높은 주부에 비해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시간이 길었으며, 주부의 사회문화적 시간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월가계소득

월가계소득도 가사노동시간과 사회문화적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이다. 홍성희(1993)의 연구에 의하면 월가계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집단의 가사노동시간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오경희(1995)의 연구에서는 요일에 따라 차이를 보여, 평일의 경우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가정의 주부가 200만원 이상인 가정의 주부보다 가사노동시간이 더 길었으나 휴일의 경우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정의 주부가 100만원 이상의 가정의 주부보다 가사노동시간이 더 길었다.

한편 사회문화적 시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월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사회문화적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민경애, 1985; 한경미·황덕순, 1990; 홍성희, 1993), 오경희(1995)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100만~199만원인 가정의 주부가 평일에 사회문화적 시간을 가장 많이 사용했고, 반면에 300만원 이상인 가정의 주부는 가장 적게 사용하였다.

#### (4) 주부의 취업여부 및 직업지위

취부의 취업여부가 가사노동시간과 사회문화적 시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취업주부인 경우 비취업주부에 비해 가사노동시간과 사회문화적 시

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오경희, 1995; 이정수, 1984; 채옥희, 1995; 홍성희, 1993). 한편 한경미(1991)의 연구에 의하면 하위서비스·판매·노무직, 기능직·사무직 종사자에 비해 관리·전문직 종사자가 가사노동에 보다 적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가족수

선행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가족수가 많을수록 가사노동시간은 증가하지만 사회문화적 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오경희, 1995; 채옥희, 1996; 한경미·황덕순, 1990; 한경미, 1991). 채옥희(1996)의 연구에 의하면 가족수가 많아질수록 가사노동시간도 늘어나고 있고, 가족수가 3명인 경우와 4~6명인 경우,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오경희(1995)의 연구에서는 가족수가 적은 경우 사회문화적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막내자녀의 연령

막내자녀의 연령도 생활시간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한경미(1991)의 연구에 의하면 막내자녀가 성장할수록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하다가 중고등학교 연령일 때 다시 증가하였으며, 사회문화적 시간도 막내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생활시간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고려하였으며, 특별한 보살핌을 요구하는 가족원이 있는 가정의 경우 재택근무자들은 이들로 인한 업무방해가 있다는 보고(문숙재·김지희, 1997)에 따라 노인 또는 장애인 유무도 생활시간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포함시켰다.

2. 재택근무자에 관한 선행연구

1) 재택근무 및 재택근무자의 개념

재택근무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소득취득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택노동, 원격근무, 가내근로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김효정, 1999). Horvath

(1986)에 의하면 소득을 창출하는 가사노동과 서로 상호교환될 수 있는 것을 재택근무로 보고 있으며 Pratt(1987)는 “가정 내에서 또는 가정을 근거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노동”을 재택근무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Christensen(1988)은 재택근무를 “근로자의 고용지위와 상관없이 가정 내에서 행해지는 특정유급의 노동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것과 상호교환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한편, 박명희·박미혜(1997)에 의하면 “가정 내에서 행하는 유급의 소득취득 활동”을 재택근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재택근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재택근무자이며, Horvath(1986)에 의하면 가정에서 그들의 주요 업무를 적어도 일주일에 8시간 이상 노동하는 사람을 재택근무자로 보고 있다. 미국의 1990년도 Census of Population and Housing 자료를 이용하여 직장근무자와 재택근무자의 소득차이를 연구한 김효정·매리 윈터(1998)의 연구에서는 작업장소의 이동수단에 따라 직장근무자와 재택근무자를 구분하였는데, “집에서 일을 한다”라고 응답한 경우를 재택근무자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박미혜(1998)는 “가정 내 또는 가정의 인접건물을 기반으로 해서 가사활동과 소득창출 활동을 같은 공간에서 수행하는 사람”을 재택근무자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정의를 종합하여, 주된 업무 또는 제1차적인 업무를 자택 또는 자택을 근거로 하여 소득창출 활동에 종사하는 자를 재택근무자로, 그리고 직장의 출퇴근을 통해 주된 업무 또는 제1차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소득창출을 하는 자를 직장근무자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재택근무자의 특성

재택근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어온 미국의 연구를 살펴보면, 재택근무자가 재택근무를 선택하게 된 동기로 재택근무는 기혼여성으로 하여금 1) 가정에서의 역할과 소득창출의 역할을 병행할 수 있게 해주고 2) 직접적인 관리의 감독으로부터 자유롭고 3) 식비, 교통비, 의복비, 탁아비의 절감을 가져오고 4) 자녀 및 다른 가족구성원을 돌보는 등

안에 노동시장에 머무를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Costello, 1988). 한편, 재택근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서는 융통성(40.7%), 가족돌보기(32.9%), 시간절약(9.7%) 순으로 나타났으며, 단점으로는 일을 떠날 수가 없다(21.3%), 가정의 일로 인해 작업이 방해될 받는다(12.8%), 일과 가정이 상충된다(11.8%) 순으로 나타났다(Stafford, Winter, Duncan & Genalo, 1992).

1991년 미국의 Current Population Survey(CPS)를 이용한 Deming(1994)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 노동시장의 약 18.3%가 재택근무자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약 30%가 일주일에 8시간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여성들이 어린 자녀가 없는 여성에 비해 재택근무에 보다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2년에 행해진 미국 NE-167 프로젝트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재택근무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남성(58.1%)이 여성(41.9%)보다 많았고, 평균연령은 43.6세이었다(Stafford et al., 1992; 김효정, 1996). 또한 결혼상태 및 자녀수를 살펴보면 84.8%가 기혼자였고, 44.1%가 자녀가 없었으며, 73.3%가 6세 이하의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양육 서비스와 관련된 Heck 등(1992)의 연구에 의하면 가계소득이 높고, 편부모가족인 경우, 그리고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재택근무자가 자녀양육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많았다. 또한 Heck(1992)은 자녀가 재택근무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18세 이하의 자녀 존재는 재택근무에 참여하는 시간을 1년간 407시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세 미만 자녀의 존재는 자영재택근무자가 될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근무자의 생활만족도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48.0%가 자신들의 생활의 질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매우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29.2%로, 대부분의 재택근무자들은 그들의 생활의 질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ritzmacher, 1993).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재택근무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문숙재·김은희·이석경·제민정(1998)은 재택근무의 장점으로 여성들이 시장에서 재화를 벌

어들일 수 있는 직업이 있고 자녀를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이 되며 또한 전업주부라는 위축감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출퇴근 없이 집안에서 일을 하게 되므로 가족구성원이 주부자신을 재화를 벌어들이는 시장노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점이 재택근무의 단점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조옥라(1995)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 재택근무자들은 시간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일을 몰아서 하는 경우가 많고 재택근무자들이 작업조건을 스스로는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의 강도는 가사일과의 관계 속에서 강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미혜(1998) 연구에서 재택근무자의 생활만족은 재택근무자의 개인/가계 특성, 업무특성, 업무환경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자녀양육이 재택근무의 큰 동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를 비교해보았을 때 소득수준은 재택근무자가 직장근무자에 비해 낮았으나 가족생활만족과 시간사용만족은 재택근무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의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을 살펴본 김효정(2001)의 연구에서는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에 비해 재택근무자가 타인에게 협조하기, 가사노동의 수행표준 낮추기의 시간관리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의 평일, 토요일, 일요일 생활시간 사용은 각각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의 평일, 토요일, 일요일 생활시간 사용에 어떤 변수들이 각각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사도구

본 연구는 근무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시간일지 기록표로 구성된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근무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기혼여성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 가족수, 월가계소득, 막내 자녀의 연령, 노인/장애인의 유무 등이 포함되었다. 시간일지 기록표는 하루 24시간을 15분 단위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시간일지 기록표 기입방법에 대해 다양한 활동의 예를 제시하여 설명한 후, 응답자로 하여금 평일, 토요일, 일요일 3일간의 시간사용을 기입토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의 생활시간 모두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정학 분야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이기영·김외숙·서창원·이승미, 1994; 이정수, 1984; 조희금, 1993; 한경미, 1991) 생활시간 분류를 기본으로 하여 생리적 시간, 수입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사회문화적 시간으로 분류하였으며, 각각의 시간에 포함되는 활동은 다음과 같다.

① 생리적 시간: 생리적으로 에너지를 재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시간으로 수면, 식사, 목단장, 목욕, 배설, 의료 등을 포함하였다.

② 수입노동시간: 수입을 획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노동시간으로 근무시간, 이동시간 등이 포함되었다.

③ 가사노동시간: 일상생활에서 가정의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가사노동에 사용하는 시간으로 식생활영역, 의생활영역, 주생활영역, 가족돌보기, 가정경영, 장보기 등이 포함되었다.

④ 사회문화적 시간: 생리적 시간과 수입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을 제외하고 남는 시간으로 독서, 신문·잡지보기, TV시청, 라디오 청취, 취미활동 및 운동활동, 사회단체활동 등을 포함시켰다.

## 3.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부산 및 김해, 마산 등 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표본을 수집하였다. 1999년 6월 15일부터 22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일부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1999년 9월 15일부터 11월 13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재택근무자의 경우 놀이방 운영, 소매업 등은 임의표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번역이나 웹편집 등은 눈덩이표집(snow sampling)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직장근무자는 재택근무자와의 비교를 위해 유사한 직업을 가진 근무자들을 임의표집을 통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배부된 설문지는 여성 재택근무자 250부, 여성 직장근무자 500부이었으며, 이 중에서 여성 재택근무자는 242부, 여성 직장근무자는 497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부실기재라고 판단되는 설문지를 제외하여 기혼여성 재택근무자 165부와 직장근무자 292부가 최종분석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 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PC+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생활시간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의 생활시간 사용을 비교하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생활시간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회귀분석을 하기에 앞서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수가 .6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Bohnmstedt & Knoke, 1982). 한편 중회귀분석에서 기혼여성의 교육수준(고졸 이하=0, 전문대졸 이상=1), 직업(비전문직=0, 전문직=1), 노인/장애인의 유무(없음=0, 있음=1)는 가변수로 처리하였고, 다른 변수들은 원점수를 이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인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의 일반적인 특성이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연령

별로 보면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평균 연령이 37.0세,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의 평균 연령이 35.8세이었으며, 두 집단 모두 다른 연령층에 비해 30대가 많이 표집되었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전문대졸 이상의 비율이 기혼여성 재택근무자는 46.7%, 직장근무자가 23.6%로,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에 비해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교육수준이 높았다. 직업별로 보면 번역가, 컴퓨터프로그래머, 방송모니터, 약사 등은 전문직으로, 소매업 운영자 및 판매점원 등은 비전문직으로 구분하였는데, 기혼여성 재택근무자는 비전문직에 비해 전문직이 많이 표집된 반면, 기혼여

성 직장근무자의 경우 전문직과 비전문직이 비슷하게 표집되었다. 평균 가족수는 기혼여성 재택근무자가 3.6명, 기혼여성 직장근무자가 3.4명으로 두 집단 간의 큰 차이는 없었으나, 기혼여성 재택근무자는 가족수가 4명인 경우가 55.2%로 가장 많았고 기혼여성 직장근무자는 가족수가 3명인 경우가 35.6%로 가장 많았다. 월가계소득은 301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이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경우 13.9%인데 반해, 기혼여성 직장근무자는 38.3%를 차지하였으며,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의 평균값이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에 비해 100만원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변 수	집 단	기혼여성 재택근무자(N=165)	기혼여성 직장근무자(N=292)
		빈도(%)	빈도(%)
연 령	20~29세	6( 3.6)	67(22.9)
	30~39세	114(69.1)	157(53.8)
	40~49세	34(20.6)	58(19.9)
	50세 이상	11( 6.7)	10( 3.4)
	평균 표준편차	37.02 6.92	35.76 6.45
교육수준	고졸 이하	88(53.3)	223(76.4)
	전문대졸 이상	77(46.7)	69(23.6)
직 업	비전문직	67(40.6)	142(48.7)
	전문직	98(59.4)	150(51.3)
가 족 수	2명	12( 7.3)	59(20.2)
	3명	54(32.7)	104(35.6)
	4명	91(55.2)	93(31.8)
	5명 이상	8( 4.8)	36(12.4)
	평균 표준편차	3.62 .82	3.41 1.05
월 가 계 소 득	100만원 이하	14( 8.5)	12( 4.1)
	101만원~200만원 이하	46(27.9)	53(18.2)
	201만원~300만원 이하	82(49.7)	115(39.4)
	301만원~400만원 이하	16( 9.7)	73(25.0)
	401만원 이상	7( 4.2)	39(13.3)
	평균 표준편차	2,345,939.39 912,231.85	3,249,863.01 1,287,942.55
막내자녀의 연령	평균	6.66	4.01
	표준편차	7.29	6.09
노인/장애인 유무	없음	154(93.3)	261(89.4)
	있음	11( 6.7)	31(10.6)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경우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에 비해 막내 자녀의 평균 연령이 높았으며, 가정 내에서 돌봐야 하는 노인이나 장애인도 재택근무자에 비해 직장근무자의 가정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의 생활시간 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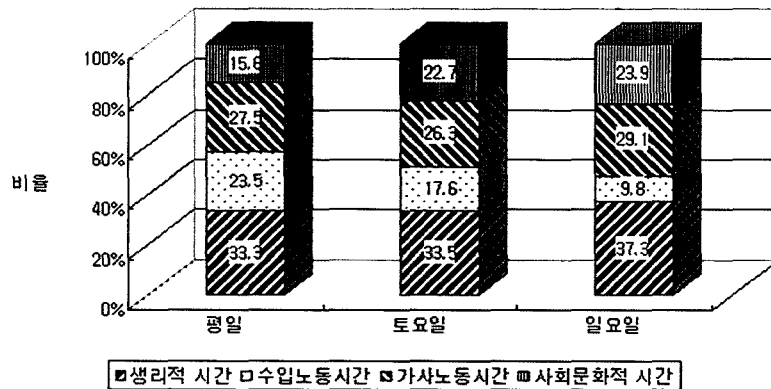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의 요일별 생활시간 사용량 및 구조, 그리고 집단간의 t 검정 결과가 <그림 1>, <그림 2>,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각 집단별 생활시간 사용량 및 구조를 살펴보면 기혼여성 재택근무자는 생리적 시간의 경우 평일 479.21분(33.3%), 토요일 482.74분(33.5%), 일요일 537.03분(37.3%)을 소비하고 있었다. 수입노동시간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에 각각 338.91분(23.5%), 252.73분(17.6%), 140.36분(9.8%)을 할애하였다. 가사노동에는 평일 396.67분(27.5%), 토요일 378.41분(26.3%), 일요일 419.09분(29.1%)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시간에 평일 225.21분(15.6%), 토요일 326.12분(22.7%), 일요일 343.52분(23.9%)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의 경우 생리적 시간에 평일 480.96분(33.4%), 토요일 486.70분(33.8%), 일요일 566.20분(39.3%)을 소비하고 있었다. 수입노동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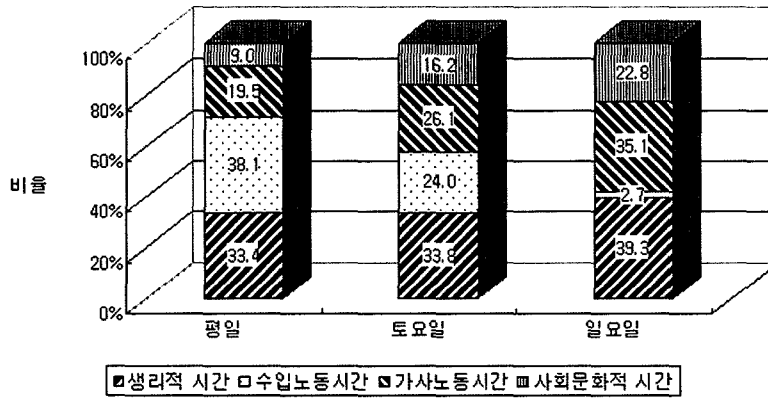
는 평일 548.02분(38.1%), 토요일 345.12분(24.0%), 일요일 39.18분(2.7%)을 사용하고 있었다. 가사노동시간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에 각각 281.87분(19.5%), 375.36분(26.1%), 506.07분(35.1%)이었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활동에 평일 129.15분(9.0%), 토요일 232.83분(16.2%), 일요일 328.55분(22.8%)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생활시간 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한국방송공사(1995)의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생리적 시간에 있어서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기혼여성 직장근무자 모두 평일에 비해 토요일이나 일요일의 생리적 시간이 길었다. 그리고 수입노동시간의 경우 두 집단 모두 평일, 토요일, 일요일의 순으로 수입노동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가사노동시간을 살펴보면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경우 일요일, 평일, 토요일의 순으로 길었으나,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의 경우 일요일, 토요일, 평일의 순으로 길게 나타났다. 또한 두 집단 모두 평일에 비해 토요일과 일요일의 사회문화적 시간이 길었다.

한편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의 생활시간을 비교해본 결과, 일요일 생리적 시간,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 수입노동시간, 평일 및 일요일 가사노동시간, 그리고 평일 및 토요일 사회문화적 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에 비해 기혼여성 재택



<그림 1>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요일별 생활시간 구조



<그림 2>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의 요일별 생활시간 구조

<표 3>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의 생활시간 사용에 대한 t 검증

시 간	근무자	평 일		토요일		일요일	
		평균(분)	t값	평균(분)	t값	평균(분)	t값
생리적 시간	기혼여성 재택근무자	479.21	-26	482.74	-44	537.03	-3.30***
	기혼여성 직장근무자	480.96		486.70		566.20	
수입노동시간	기혼여성 재택근무자	338.91	-14.46***	252.73	-4.94***	140.36	5.60***
	기혼여성 직장근무자	548.02		345.12		39.18	
가사노동시간	기혼여성 재택근무자	396.67	7.35***	378.41	.16	419.09	-4.07***
	기혼여성 직장근무자	281.87		375.36		506.07	
사회문화적 시간	기혼여성 재택근무자	225.21	6.93***	326.12	4.84***	343.52	.67
	기혼여성 직장근무자	129.15		232.83		328.55	

\*\*\* p<.001

근무자의 일요일 수입노동시간, 평일 가사노동시간, 그리고 평일과 토요일 사회문화적시간이 길었으며, 일요일의 생리적 시간 및 평일과 토요일의 수입노동시간, 일요일의 가사노동시간은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에 비해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의 경우 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에 비해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경우 생활시간의 사용에 있어 요일에 따른 변화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많은 재택근무자들이 소매업과 같은 가족기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평일이나 휴일의 구분없이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혼여성 재택근

무자의 생활시간은 요일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두 집단 모두 일요일의 가사노동시간이 평일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일요일에 줄어든 수입노동시간 대신 가사노동에 자신의 시간을 우선적으로 배분하여 평일에 하지 못한 가사노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의 생활시간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의 생활시간 사용에 대한 t 검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생활시간을 중심으로 하여,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관련변인에 따라 이들 시간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는데, 각각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생리적 시간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의 생리적 시간은 일요일에만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에 대한 회귀분석을 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일요일 생리적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직업, 막내자녀의 연령, 가족수, 월가계소득 순이었고( $R^2=.40$ ),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의 경우에는 교육수준, 직업, 연령 순으로 유의하였다( $R^2=.17$ ).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 모두 전문직 종사자인 경우 비전문직 종사자에 비해 일요일에 생리적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뒤에서 살펴볼 수입노동시간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전문직 종사자는 비전문직 종사자에 비해 일요일 수입노동시간이 적기 때문에 생리적 활동에 보다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경우 막내자녀의 연령이 적을수록 생리적 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의 경우에는 자녀양육시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 등의 가사조력자의 도움을 받는데 반해,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경우 가정에 있으면서 근무를 병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가사조력자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어린자녀

<표 4>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의 생리적 시간에 대한 회귀분석

변 수	일 요 일			
	기혼여성 재택근무자		기혼여성 직장근무자	
	b	$\beta$	b	$\beta$
연령	.20	.02	-3.58	-.24***
교육수준 <sup>a)</sup>	-28.31	-.17	-91.60	-.41***
직업 <sup>a)</sup>	120.96	.73***	63.94	.34***
가족수	-46.09	-.46***	-4.72	-.05
월가계소득	1.40E-05	.16*	-4.53E-07	-.02
막내자녀의 연령	5.70	.51***	1.99	.13
노인/장애인 유무 <sup>a)</sup>	-52.35	-.16	-29.69	-.10
상수	683.49		783.64	
R <sup>2</sup>	.40		.17	
F value	16.78***		9.60***	

<sup>a)</sup> 가변수로 처리되었음

\*p<.05 \*\*p<.01 \*\*\*p<.001

돌보기에 들어가는 시간의 증가는 자신의 건강이나 미용에 할애하는 시간의 감소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월가계소득과 생리적 시간은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임정빈·임혜경(199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근무자의 생리적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수입노동시간

수입노동시간에 대한 t 검증결과에 의하면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의 평일, 토요일, 일요일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각각의 생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평일의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수입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노인/장애인의 유무, 가족수, 직업 순으로 나타났으며( $R^2=.16$ ),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의 경우 연령, 교육수준, 직업 순으로 유의하였다( $R^2=.23$ ). 또한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토요일 수입노동 시간에 유의한 변수들은 노인/장애인의 유무, 직업, 막내자녀의 연령, 연령, 교육수준 순이었으며( $R^2=.39$ ),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의 경우에는 직업, 교육수준, 노인/장애인의 유무,

월가계소득 순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R^2=.13$ ). 그리고 일요일의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수입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들은 직업, 노인/장애인의 유무, 교육수준, 연령, 가족수의 순서로 나타났고( $R^2=.60$ ),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의 경우 막내자녀의 연령, 직업, 가족수, 연령 순으로 유의하였다( $R^2=.06$ ).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 모두 평일, 토요일, 일요일의 수입노동시간은 직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전문직 종사자에 비해 수입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평일에 있어서 이들의 수입노동시간의 평균들을 각각 살펴보면, 비전문직 재택근무자는 367.16분, 전문직 재택근무자는 319.59분이었고, 비전문직 직장근무자는 587.97분, 전문직 직장근무자는 510.20이었다.

한편,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경우 가정 내에 돌봐야 하는 노인이나 장애인의 유무가 수입노동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문숙재·김지희(1997)의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일치하는 것으로 재택근무자의 가정 내에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 이들을 돌보는

<표 5>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의 수입노동시간에 대한 회귀분석

변 수	평 일				토요일				일요일			
	기혼여성 재택근무자		기혼여성 직장근무자		기혼여성 재택근무자		기혼여성 직장근무자		기혼여성 재택근무자		기혼여성 직장근무자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연령	.90	.04	-7.84	-.34***	6.63	.24***	2.75	.09	11.98	.37***	-4.03	-.16*
교육수준 <sup>a)</sup>	33.05	.11	-68.48	-.20**	-89.62	-.23*	-136.49	-.30***	-210.33	-.47***	2.11	.01
직업 <sup>a)</sup>	-66.11	-.22*	-58.85	-.20**	-133.90	-.34***	-143.98	-.38**	-373.91	-.82***	-58.11	-.18**
가족수	-71.70	-.39***	-5.03	-.04	-42.43	-.18	-12.66	-.07	-44.28	-.16*	-26.65	-.18*
월가계소득	-8.92E-06	-.05	-1.71E-06	-.04	-2.61E-05	-.12	-7.96E-06	-.13*	-6.18E-07	-.01	-1.38E-06	-.03
막내 자녀의 연령	3.64	.18	-.28	-.12	-7.98	-.30***	-1.28	-.04	4.25	.14	-6.60	-.25**
노인/장애인 유무 <sup>a)</sup>	-334.48	-.55***	13.66	.03	-359.37	-.47***	-93.55	-.15*	-458.62	-.51***	30.58	.06
상수	896.02		932.83		642.55		207.00		425.07		253.19	
R <sup>2</sup>	.16		.23		.39		.13		.60		.06	
F value	5.58***		13.70***		15.75***		7.43***		35.76***		3.53**	

a) 가변수로 처리되었음

\*p<.05 \*\*p<.01 \*\*\*p<.001

시간의 증가로 수입노동시간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3) 가사노동시간

〈표 3〉에 살펴본 바와 같이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 간에 가사노동시간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평일과 일요일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본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평일의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수, 막내자녀의 연령, 직업, 노인/장애인의 유무, 월가계소득 순이었고 ( $R^2=.37$ ),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의 경우에는 연령, 막내자녀의 연령, 가족수 순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R^2=.14$ ). 그리고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일요일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업, 가족수, 노인/장애인의 유무, 막내자녀의 연령 순으로 유의하였으며( $R^2=.25$ ),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의 경우 가족수, 막내자녀의 연령, 월가계소득 순으로 유의하였다( $R^2=.25$ ).

이들 결과에 의하면 가족수가 많고 막내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가사노동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시간사용 연구에서의 결과들(채옥희, 1996; 한경미, 1987; 한경미·황덕순, 1990; 한경미, 1991)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는 가족수가 많아지면 가사일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이며,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자녀돌보기 시간이 가사노동시간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가정 내에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시간의 증가로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앞에서 수입노동시간에서의 결과에서 지적되었듯이, 직장근무자와는 달리 재택근무자의 경우 노인이나 장애인의 유무가 수입노동시간의 감소 및 가사노동시간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재택근무가 특별한 요구를 필요로 하는 가족구성원을 보살피는 일을 보다 용이하게 해 주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 재택근무자가 가족돌보기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워지며 가사노동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직업지위와 가사노동시간은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어 비전문직에 종사하는 근무자의 가사노동시간이 전문직 종사자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시간제

〈표 6〉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회귀분석

변 수	평 일				일요일			
	기혼여성 재택근무자		기혼여성 직장근무자		기혼여성 재택근무자		기혼여성 직장근무자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연령	1.92	.07	9.00	.42***	1.12	.03	4.22	.13
교육수준 <sup>a)</sup>	-14.60	-.04	11.21	.03	-18.18	-.04	7.09	.01
직업 <sup>a)</sup>	130.49	.33***	31.29	.11	218.74	.47***	4.92	.01
가족수	174.47	.74***	30.98	.24***	122.94	.44***	109.81	.55***
월가계소득	-3.29E-05	-.16*	4.56E-06	.11	-1.25E-05	-.05	8.46E-06	.13**
막내 자녀의 연령	-13.26	-.50***	-7.76	-.34***	-6.45	-.20*	-10.61	-.30***
노인/장애인 유무 <sup>a)</sup>	247.99	.32***	22.03	.05	266.80	.29**	-39.58	-.06
상수	-300.12		-174.14		-364.75		22.56	
R <sup>2</sup>	.37		.14		.25		.25	
F value	14.73***		7.99***		8.77***		15.22***	

a) 가변수로 처리되었음  
\*p<.05 \*\*p<.01 \*\*\*p<.001

약으로 인하여 이용가능한 시간이 부족한 경우 가사노동에의 시간할애가 적어진다는 시간가용성(time availability) 가설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전문직 종사자의 수입노동시간이 전문직 종사자의 수입노동시간에 비해 많았기 때문에 비전문직 종사자가 가사노동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전문직 종사자보다 적은데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 4) 사회문화적 시간

사회문화적 시간에 대한 t 검증결과에 의하면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의 평일과 토요일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사회문화적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평일의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사회문화적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막내자녀의 연령, 가족수, 월가계소득 순이었고( $R^2=.21$ ),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의 경우에는 막내자녀의 연령, 교육수준, 가족수 순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R^2=.20$ ). 그리고 토요일의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사회문화적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막내자녀

의 연령, 교육수준, 가족수, 노인/장애인 유무, 연령 순이었고( $R^2=.40$ ), 기혼여성 직장근무자는 막내자녀의 연령, 가족수, 노인/장애인 유무, 직업, 교육수준, 월가계소득 순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R^2=.19$ ).

이상과 같이 가족수가 많거나 막내자녀의 연령이 어리고,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선행연구의 결과(오경희, 1995; 한경미·황덕순, 1990; 한경미, 1991)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사회문화적 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들 요소가 가사노동시간과 정적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 결과적으로 사회문화적 시간에 할애하는 시간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 V.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요일별 생활시간 사용실태 및 생활시간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와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부산 및 경남지역의 기혼여성 재택

<표 7>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의 사회문화적 시간에 대한 회귀분석

변 수	평 일				토요일			
	기혼여성 재택근무자		기혼여성 직장근무자		기혼여성 재택근무자		기혼여성 직장근무자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연령	.80	.03	.67	.03	-4.63	-.14*	-3.03	-.11
교육수준 <sup>a)</sup>	-22.72	-.07	80.24	.27***	-120.45	-.26**	-74.62	-.18**
직업 <sup>a)</sup>	-44.65	-.13	.59	.01	49.34	.10	82.24	.24***
가족수	-60.52	-.30**	-29.37	-.24***	-71.61	-.25***	-61.78	-.37***
월가계소득	3.17E-05	.18*	5.88E-07	.15	3.04E-05	.12	6.84E-06	.13*
막내 자녀의 연령	7.82	.34***	10.59	.51***	16.92	.53***	13.03	.45***
노인/장애인 유무 <sup>a)</sup>	-92.15	-.14	-18.87	-.05	-165.34	-.17*	-135.56	-.24***
상수	241.00		82.78		453.53		613.63	
R <sup>2</sup>	.21		.20		.40		.19	
F value	7.07***		11.22***		16.34***		10.91***	

a) 가변수로 처리되었음

\*p<.05 \*\*p<.01 \*\*\*p<.001

근무자 165명과 기혼여성 직장근무자 292명으로부터 얻었으며, 빈도분석, t 검정,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일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실태를 살펴본 결과,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기혼여성 직장근무자 모두 평일에 비해 토요일이나 일요일의 생리적 시간이 길었다. 수입노동시간은 두 집단 모두 평일, 토요일, 일요일의 순으로 길게 나타났다. 가사노동시간을 살펴보면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경우 일요일, 평일, 토요일의 순으로 길었으나,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의 경우 일요일, 토요일, 평일의 순으로 길게 나타났다. 그리고 두 집단 모두 평일에 비해 토요일과 일요일의 사회문화적 시간이 길었다.

둘째,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일요일 생리적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직업, 막내자녀의 연령, 가족수, 월가계소득 순이었고,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의 경우에는 교육수준, 직업, 연령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평일의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수입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노인/장애인의 유무, 가족수, 직업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의 경우 연령, 교육수준, 직업 순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토요일 수입노동시간에 유의한 변수들은 노인/장애인의 유무, 직업, 막내자녀의 연령, 연령, 교육수준 순이었으며,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의 경우에는 직업, 교육수준, 노인/장애인의 유무, 월가계소득 순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요일의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수입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들은 직업, 노인/장애인의 유무, 교육수준, 연령, 가족수의 순서로 나타났고,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의 경우 막내자녀의 연령, 직업, 가족수, 연령 순으로 유의하였다.

넷째, 평일의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수, 막내자녀의 연령, 직업, 노인/장애인의 유무, 월가계소득 순이었고,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의 경우에는 연령, 막내자녀의 연령, 가족수 순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일요일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업, 가족수, 노인/장애인의 유무, 막내자녀의 연령 순으로 유의하였으며,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의 경우 가족수, 막내자녀의 연령, 월가계소득 순으로 유의하였다.

다섯째, 평일의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사회문화적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막내자녀의 연령, 가족수, 월가계소득 순이었고,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의 경우에는 막내자녀의 연령, 교육수준, 가족수 순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토요일의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사회문화적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막내자녀의 연령, 교육수준, 가족수, 노인/장애인 유무, 연령 순이었고, 기혼여성 직장근무자는 막내자녀의 연령, 가족수, 노인/장애인 유무, 직업, 교육수준, 월가계소득 순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볼 때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와 같은 취업주부의 경우 수입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을 합친 총노동시간을 고려해 볼 때 장시간 노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경우 평일 수입노동과 가사노동을 합친 총노동시간이 전체의 50.0%를 차지하고 사회문화적 시간은 15.6%에 불과하였다. 또한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의 경우는 총노동시간이 기혼여성 재택근무자보다 길어 전체의 57.6%를 차지하고 있는 한편 사회문화적 시간은 9.0%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생활의 균형과 조화의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사노동에 가족구성원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취업주부에게 편중되어 있는 가사일의 부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의 가사노동시간을 요일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의 경우 평일에 비해 토요일과 일요일에 많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경우 요일에 관계없이 비슷한 시간을 가사노동에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경우 집에서 직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족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업무를 중단하고 가사노동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재택근무가 가정활동과 소득창출 활동을 가정이라는 동일한 곳에서 수행토록 하는 장점을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혼여성 재택근무자는 가사일로 인해 업무가 자주 중단되는 등의 또다른 역할갈등을 겪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직업과 가족 역할의 안전성이 직업과 가족 두 영역의 복지와 정상적인 기능에 중요하며, 직업적 역할과 가족 역할 사이의 부조화는 직업과 가족 두 영역에서의 생활의 질과 개인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Kuhnert & Palmer, 1991; Frone, Russell & Cooper, 1992). 따라서 기혼여성 재택근무자가 제한된 시간 안에 여러 역할들의 요구를 적절히 잘 조화시키고 가정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혼여성 직장근무자보다도 업무와 가사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계획성있게 업무와 가사를 처리하는 등의 더 많은 시간관리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재택근무에 대한 가족구성원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재택근무를 부업정도로만 인식하여 남편이나 자녀 등의 가사참여 정도가 낮아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다중역할에 따른 부담감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가족구성원들이 재택근무를 하나의 취업형태로 인식하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셋째,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경우 직장근무자에 비해 막내자녀의 연령, 그리고 노인, 장애인의 유무가 생활시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가정 내에서 돌봐야 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경우 직장근무자에 비해 재택근무자의 생활시간 사용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택근무는 가족과 직업을 결합시키고 시간을 융통성있게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재택근무자는 집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족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업무를 중단하고 가사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직업과 가족 책임을 같은 공간 내에서 행해야 하는 재택근무는 이로 인한 연속적인 압력이 가족역할 스트레스의 주요 원천이 될 뿐만 아니라, 가족 및 직

업적 갈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hrenzten(1990)과 Christensen(1987)에 의하면 재택근무자들은 그들의 자녀를 다른 사람이 돌보아줄 때, 자녀가 잠들었을 때, 학교에 갔을 때 등 가족원의 요구가 적을 때 일을 하였고, 가정에서 일하는 것이 자녀양육에 대한 외부기관의 필요성을 완전히 제거시키는 것은 아님을 지적하면서 재택근무자가 일과 자녀양육 활동을 결합하기가 쉽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기혼여성 재택근무자들이 가정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자녀나 노인, 장애인들을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거나 기존의 시설들을 좀더 보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가정생활의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 생활시간 사용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시간의 양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기 때문에, 생활시간 사용의 보다 심도있는 분석을 위해서 후속 연구에서는 생활행동의 시간대별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김효정(1999). 재택근무의 고찰 및 가정학의 과제. *인문사회과학논총*, 6(1), 109-123.
- 김효정(2001).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의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2), 83-96.
- 김효정, 매리 윈터(1998). A study for the effect of sex on choice of occupation and work location and on earnings: Comparison of on-site workers with home-based workers in the U.S. *대한가정학회지*, 36(7), 123-141.
- 농촌진흥청(1986). *농가주부 및 경영주의 생활시간 분석*.
- 문숙재(1996). *생활시간연구*. 학지사.
- 문숙재, 김은희, 이석경, 제민정(1998). SOHO직이 가사노동참여시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1), 151-165.
- 문숙재, 김지희(1997). 가족기업 경영에 관한 이론적



- 논의. 대한가정학회지, 35(6), 317-334.
- 민경애(1985). 주부의 여가시간과 여가활용의 실태와 지향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 15-22.
- 박명희, 박미혜(1997). 재택근무의 고찰과 가정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3), 1-14.
- 박미혜(1998).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특성에 따른 관리행동과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병숙, 임정빈(1989). 가정관리학. 동명사.
- 오경희(1995). 청주시 주부의 생활시간 사용과 관리전략.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74-87.
- 이기영, 김외숙, 서창원, 이승미(1994). 도시근로자 가정부부의 생활시간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1), 31-46.
- 이정수(1984). 가족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2(2), 102-132.
- 임정빈, 임혜경(1992). 1980년과 1990년 도시주부의 생활시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0(4), 261-277.
- 조희금(1993). 생산직 기혼여성의 생활시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1(3), 101-112.
- 차성란(1998). 서울시와 대전시 거주 부부의 성역할 태도와 가사노동시간. 대한가정학회지, 36(5), 137-150.
- 채옥희(1995). 확대기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시간관리 전략.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88-98.
- 통계청(2000). 생활시간조사보고서 제1권 생활시간량편.
- 한경미(1987). 비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경미(1989).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1-13.
- 한경미(1991). 취업주부의 생활시간 사용과 시간갈등.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경미, 황덕순(1990). 주부의 여가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에 관한 연구 - 교육기 자녀를 가진 비취업 주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69-82.
- 한국방송공사(1981, 1995). 국민생활시간조사.
- 한국일보(2002). 2002년 4월 18일자.
- 홍성희(1993). 주부의 가사노동 및 여가시간 배분에 관한 체계론적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55-68.
- 홍향숙, 박수경(1994). 조기출퇴근제 실시에 따른 부부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8), 48-59.
- Beach, B. (1989). *Integrating work and family lif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Albany.
- Bohrnstedt, G. W. & Knoke, D. (1982). *Statistics for social data analysis*. Itasca, IL: F. E. Peacock Publishers.
- Christensen, K. E. (1988). *The new era of home-based work: Directions and policies*. Boulder: Westview.
- Costello, C. B. (1988). Clerical home-based work: A case study of work and family. In K. E. Christensen(ed.). *The new era of home-based work: Directions and policies*. Boulder: Westview.
- Frone, M. R., Russell, R. & Cooper, M. L. (1992). Antecedents and outcomes of work-family conflict: Testing a model of the work-family interfa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7, 65-78.
- Gritzmacher, J. E. (1993). Satisfaction with home-based employment.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2), 141-161.
- Heck, R. K. (1992). The effects of children on the major dimensions of home-based employment.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3(3), 315-346.
- Heck, R. K. Winter, M. & Stafford, K. (1992). Managing work and family in home-based employment.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3, 187-212.
- Hill, M. S. (1985). Patterns of time use. In F. T. Juster(ed.). *Time, goods, well-being*. ISR.
- Horvath, F. W. (1986). Work at home: Finding from CPS. *Monthly Labor Review*, 109(11), 31-35.
- Kim, H. (1995). Sex and earnings differentials among home-based workers. Ph.D. Dissertation. Iowa

- State University.
- Kuhnert, K. W. & Palmer, D. R. (1991). Job security, health, and the intrinsic and extrinsic characteristics of work. *Group & Organization Studies*, 16, 178-192.
- Owen, A. J., Carsky, M. L. & Dolan, E. M. (1992). Home-based employment: Historical and current consideration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3, 121-138.
- Pratt, J. H. (1987). Methodological problems in surveying the home-based workforce.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31, 49-60.
- Rowe, B. R. & Bentley, M. T. (1992). The impact of the family of home-based work.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3, 279-297.
- Rowe, B. R., Stafford, K. & Owen, A. J. (1992). Who's working at home: The types of families engaged in home-based work.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3, 279-297.
- Stafford, K., Winter, M., Duncan, K. & Genalo, M. A. (1992). Studying at-home income generation: Issues and method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3(2), 139-158.
- Szalai, A. (1972). *The use of time. Daily activities of urban and suburban populations in twelve counties.* The Hague: Mouton.

(2003년 9월 26일 접수, 2004년 1월 8일 채택)